

## 다양한 세대 위한 전용 공간 조성, 제공하는 지자체들

인천시 경제정책과  
2023. 7. 11.

광주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 
2023. 7. 12.

### 인천시, 50~60대 시민 전용공간 '신중년 아지트' 개소

인천시는 일자리통합 공간인 제물포스마트타운에 50~60대 시민을 위한 '신중년 아지트'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. 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인천의 50~60대 인구 비율은 31.6%로, 20년 전인 2003년 14.2%에서 17.4% 증가하였다.

신중년 아지트는 라운지·아지트·다목적룸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50~60대 시민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사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.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위한 현장 채용관과 채용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, 지역사회 공헌을 원하는 이용자를 위한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연계도 진행할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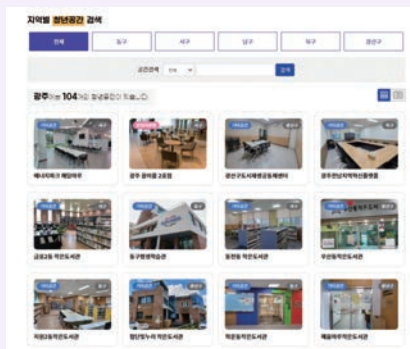
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신중년 지원 사업 정보를 수집·가공해 관련 기관 및 이용자와 공유하고, 지역 내 관련 기관과 협업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 관련 기관에서 신중년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아지트와 다목적실 등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신중년 1인 서재 대관도 계획 중이다.

### 광주시, '청년자율공간' 대폭 확충

광주시가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'청년자율공간'을 올해 안에 11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. 시에서 추진 중인 '청년자율공간 확충사업'은 민간·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을 청년활동공간으로 활용,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.

시는 동구·서구·남구 등 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6월 말 기준 총 103개소의 청년자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, 기존에 운영 중인 거점 '청년활동공간' 24개소에 더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청년활동공간에서는 청년활동과 취·창업 지원, 심리 상담, 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청년자율공간에서도 물리적인 공간 제공에 더해 취미활동과 원데이 클래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시는 새로 선정된 민간 부문 청년자율공간에 안내 현판을 설치하여 청년들이 해당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,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을 통해 참여 공간과 예약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



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청년공간 정보

출처: 광주청년정책플랫폼. <https://www.gwangju.go.kr/youth/spacelInfoList.do#>(검색일: 2023. 8. 23.)